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및 주요 회원사 방문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이하 '한국협회')는 지난 1월 30일(수)부터 3일간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이하 '일본협회')를 방문하여 각 협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일본협회 회원사 4곳(올림푸스, 일본항업(株), IGES, 스미토모화학) 및 EY Japan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CSR/지속가능경영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협회는 현재 약 300여 개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영리 264개(Participant 30개, Signatory 234개), 비영리 33개),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신연회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희망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협력사 및 고객사의 요청과 더불어 학계에서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일본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ESG 평가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G20/B20 및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정부의 'SDGs 촉진 위원회', Keidanran(일본 전경련), 미디어(아사히 신문, 일본경제 신문(닛케이)) 등의 선도적인 역할이 CSR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협회는 회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관심 이슈에 따른 12개의 분과위원회(Working Group)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망, ▲환경관리, ▲인권실사, ▲인권교육, ▲반부패, ▲재해리스크경감, ▲SDGs, ▲ESG, ▲CSV, ▲여성역량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는 3명의 리더(기업 또는 전문가)가 Facilitator 역할을 하고,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툴, 가이드선, 보고서 등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 일본협회에 제출한 후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협회 방문단은 1월 30일(수) 오후 인권교육분과위원회의 제6회 미팅을 참관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 날은 '재일 외국인 인권'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본 분과위원회에 참여 중인 기업은 약 40여 기업으로, 참석자는 인사팀, CSR팀 등 현업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조별 토론 및 슬라이드 발표를 약 세 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인권교육분과위원회 리더들은 "사내에서도 본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 시간 및 미팅에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며, 비슷한 업무 고민을 갖는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한국협회 방문단은 하치오지시에 위치한 올림푸스 연구소를 방문하여 Mr. Masahito Kitamura 정보보호 총괄 책임 및 CSR 본부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올림푸스는 2004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 중이며, 2011년 부패 사건 연루로 인해 전체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와 더불어 10개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일본협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CSR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강조하고, SDGs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림푸스에서는 전 지사별 CSR담당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CSR회의를 통해 각 국가에서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매년 300명 규모의 CSR포럼을 개최하여 고위 경영진 및 사외이사들에게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CSR전략 확대를 설득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로는 ▲네트워킹 기회를 꼽았으며, ▲일본협회를 통한 타 기업 및 CSR전문가들과의 연결고리 형성, ▲워크숍 및 교육이 도움이 되며, 점차적으로 협력사 및 공급망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미팅으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국제 이사 기업인 Japan Asia Group 국제항업㈜(Kokusai Kogyo)을 방문하여 Mr. Akira Doi IR담당 부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Doi부장은 국제항업㈜는 재난 관리, 환경 보호,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도시 정비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국제 이사이자 국제항업㈜의 대표로 재직중인 Ms. Sandra Wu가 2011년 UNISDR(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의 민간부문 자문그룹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유엔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2013년에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임직원들이 유엔차원의 기업 활동을 자랑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재해관리 부문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내에 CSR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보다는 전사적인 활동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2014년도에 일본협회 내 재해리스크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분과위원회 창설을 제안하여 현재까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참여를 통해 다른 산업군의 담당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유익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 설립 연구기관이자 환경 이슈(자원 관리, 기후 변화)를 주로 연구하는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의 Mr. Hideyuki Mori소장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Mori소장은 IGES는 여러 리서치 보고서 작성, 정책 제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일본 내에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일본의 사례는 해외에 소개하는 한편, 주요 문서, 발간물을 번역하여 일본협회에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협회의 이사로도 참여중인 IGES는 SDGs의 중요성과 기회를 강조하며, IGES가 2017년도부터 매년 일본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SDGs Survey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Mori이사는 기업들의 SDGs 정보에 대한 높은 니즈를 바탕으로 매년 응답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며, 리더십 차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 실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했습니다.



2월 1일(금) 오전에는 2005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2011년부터 LEAD 기업으로 참여 중인 스미토모 화학 CSR실의 부장인 Ms. Kanako Fukuda를 만나 자사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2018년 4월 '지속가능성 프로모션 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 인권, 반부패 활동을 통합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CEO, 이사진,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사무국은 CSR팀, 법무팀, 조달팀, 물류팀, 리서치팀, 인사팀 등 9개 부서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슈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TSP접근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Top Commitment, Solution, Participation'을 나타내며, 국내외 임직원 3만 여명의 개인별 및 부서별 SDGs Action Plan을 게재하는 캠페인을 매년 100일씩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현재 7천명 완료). 아울러, 2019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을 완벽하게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Management for Sustainability”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Fukuda부장은 이어서 화학 기업으로서 환경 및 기후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sponsible Care Initiative,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과학적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본부 및 글로벌 지사의 임원진 역시 국내외 고위급 SDGs 회의 등에서 발표자 및 패널로 참여하여 자사의 이행 노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미토모 화학 역시 사내의 여러 부서에서 일본협회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협회는 각 부서별 관심 이슈들에 대한 Knowledge Platform 으로서 동료 학습 및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협회 방문단은 마지막으로 EY Japan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부문의 Mr. Masataka Nagoshi매니저를 만나 일본협회 활동과 일본의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agoshi매니저는 EY Japan은 일본협회와 MOU를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급망 및 인권실사 분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분과 활동 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홍보는 불가하나 직접적인 세일즈를 하지 않더라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업과의 네트워킹과 비즈니스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일본 연기금의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유럽 투자자들의 투자 흐름에 맞춰 유럽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ESG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로 SDGs Reporting에 집중하고 있고 전략적 접근은 많지 않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SDGs 프로모션 활동으로 민간부문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파리기후협정 이행,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발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주류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러한 정부

및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9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신 CSR/SDGs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유익한 교육/세미나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사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